IB DIPLOMA PROGRAMME
PROGRAMME DU DIPLÔME DU BI
PROGRAMA DEL DIPLOMA DEL BI

KOREAN B – STANDARD LEVEL – PAPER 1
CORÉEN B – NIVEAU MOYEN – ÉPREUVE 1
COREANO B – NIVEL MEDIO – PRUEBA 1

Thursday 8 May 2003 (afternoon)
Jeudi 8 mai 2003 (après-midi)
Jueves 8 de mayo de 2003 (tarde)

1 h 30 m

TEXT BOOKLET – INSTRUCTIONS TO CANDIDATES

- Do not open this booklet until instructed to do so.
- This booklet contains all of the texts required for Paper 1 (Text handling).
- Answer the questions in the Question and Answer Booklet provided.

LIVRET DE TEXTES – INSTRUCTIONS DESTINÉES AUX CANDIDATS

- Ne pas ouvrir ce livret avant d'y être autorisé.
- Ce livret contient tous les textes nécessaires à l'épreuve 1 (Lecture interactive).
- Répondre à toutes les questions dans le livret de questions et réponses.

CUADERNO DE TEXTOS – INSTRUCCIONES PARA LOS ALUMNOS

- No abra este cuaderno hasta que se lo autoricen.
- Este cuaderno contiene todos los textos requeridos para la Prueba 1 (Manejo y comprensión de textos).
- Conteste todas las preguntas en el cuaderno de preguntas y respuestas.

본문 A

엄마가 해 주신 밥 ---

햇반

제품명: 햇반
포장재질: 용기 PP, 리드 PP
내용량: 180g
원료명: 쌀 100 % (배합수 제외 국내産)
제품의 유형. 곡류가공품 (살균제품). 질소충전제품
제일제당주식회사: 부산시 사하구 장림동 1037 번지
유통기한: 옆면 표기일까지
제조일: 2001. 12. 8
사용유효일: 2002. 6. 7
고객상담실 (수신자요금부담전화): 080-850-1200
본제품은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의거 교환 또는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 주소: www.CJ.net

햇반은 무균화포장 제품입니다 (무방부제).
냉장고에 보관할 필요가 없습니다.

햇반만 따로 데우시는 경우
* 점선 부분까지 벗기신 후 전자렌지 (7000 W)에서 2 분간 데우십시오.

사용후 빈용기는 지정된 장소에 버려주십시오.

본문 B

한국 이미지 "긍정적

기업인지도 삼성 최고

대한무역진흥공사 미국인 1,878명 설문조사

a 미국인들이 한국에 대해 갖고 있는 이미지는 대부분 긍정적이며 본국 기업에 대한 브랜드 인지도는 삼성, 현대, 기아, 대우, LG 순으로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b LA무역관을 포함한 대한무역진흥공사 미주지사가 지난 달 미주지역 소비자 1,87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한국과 연상돼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로는 분단국가(718명), 고도경제성장국가(535명)를 답한 사람이 가장 많았다.

반면 월드컵이라고 답한 사람은 275명으로 14.6%에 불과, 미주지역에서 월드컵 홍보가 상대적으로 미흡했음을 반영했다.

한국 하면 떠오르는건
분단국가·고도성장

아직 값싼 상품 인식
전자·통신제품 선호

한국 기업이나 브랜드에 대해서는 삼성이 538명(28.6%)으로 인지도가 가장 높았으며, 현대가 461명(24.5%)로 2위, 기아 253명(13.5%), 대우 252명(13.5%), LG 84명(4.5%) 순이었다.

최고 선진국을 100점, 최저 후진국을 50점으로 가정했을 때 한국의 점수를 묻는 질문에서는 65~79점 사이가 605명, 80~89점 사이가 560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평균 74.9점이 나왔다.

c '한국을 잘 알고 있나'라는 질문에는 보통이 636명(33.9%), 잘 모른다가 728명(38.8%)으로 한국을 미주지역에 알리는 노력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본국에 대한 인상으로는 긍정적이 781명(41.6%), 보통이 803명(42.6%)으로 조사됐다.

'한국제품을 사본 경험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그렇다"고 응답한 사람이 1,503명으로 5명중 4명은 한국제품을 구입한 적이 있으며, 전기전자제품을 구입한 경험이 있는 소비자가 903명(48%)로 가장 많았다.

d 이밖에 선물용품이 354명(18.8%), 의류 331(17.6%), 정보통신제품 214명((11.4%), 자동차 133명(7%) 순으로 나타나 전기전자제품, 정보통신제품 등이 본국의 수출 주력품목임을 나타냈다.

한국상품을 구입한 이유에 대해서는 "가격이 싸기 때문"이 667명(35.5%)이었으며, "품질이 좋기 때문"이라고 응답한 소비자는 622명(33%), "디자인 때문"은 311명(16.6%)이 답해 아직까지는 한국제품이 값싼 제품이라는 인식이 강한 것으로 드러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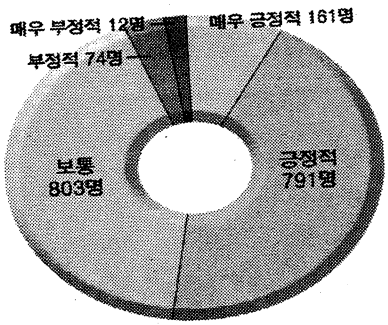
앞으로 구입하고 싶은 한국 제품을 묻는 질문에는 전기전자제품이 540명(28.8%), 선물용품 273명(14.5%), 정보통신제품 175명(9.3%), 의류 153명(8.1%), 자동차 148명(7.9%) 순으로 나왔다.

e 이와 관련, LA무역관의 허병희 차장은 "외환위기 극복 노력과 한국 출신 스포츠 스타들의 선전, 월드컵 개최 등으로 한국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가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번 월드컵행사를 잘 활용해 미국에 한국을 알리는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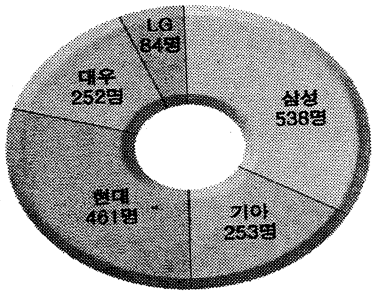
허차장은 또 "미주지역의 경우 품질, 가격외 문화적 요소를 가미한 브랜드 마케팅을 더욱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현우 기자
<khwo@joongangusa.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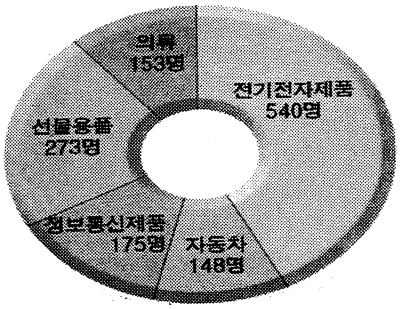
예 :


매우 부정적 12명
매우 긍정적 161명
부정적 74명
보통
803명
긍정적
791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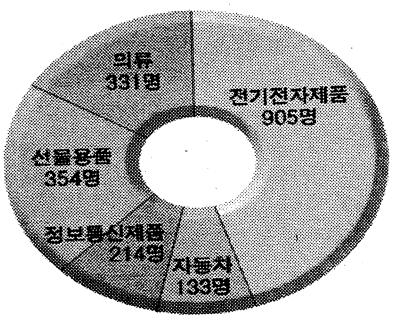
17.


LG
84명
대우
252명
삼성
538명
현대
461명
기아
253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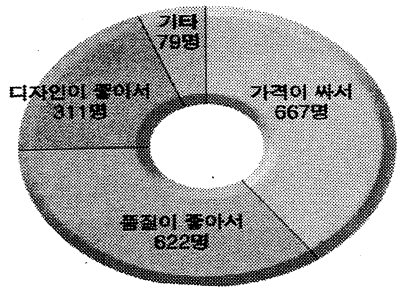
18.


의류
153명
전기전자제품
540명
선물용품
273명
정보통신제품
175명
자동차
148명

19.


의류
331명
전기전자제품
905명
선물용품
354명
정보통신제품
214명
자동차
133명

20.


기타
79명
디자인이 좋아서
311명
가격이 싸서
667명
품질이 좋아서
622명

M03/237/S(1)T

복문 C

"아름답고 훌륭한 영화" 한국영화 판매 활황 견인

임권택 감독의 '취화선'이 세계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제55회 칸 영화제서 감독상을 수상함에 따라 한국영화계의 오랜 숙원이 풀렸다.

지난 99년 송일곤 감독의 단편 '소풍'이 한국인으로서는 처음으로 칸 영화제 단편 경쟁부문에서 심사위원대상을 수상하기는 했으나 장편 경쟁부문에서 상을 받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영화관계자들은 83년 일본의 이마무라 쇼헤이 감독이 '나라야마 부시코'로 칸영화제 황금종려상을 거머쥔 이후 일본 영화가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급성장한 것처럼 이번 수상이 한국 영화의 위상을 세계적으로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올해 칸 경쟁부문에 진출한 이란 압바스 키아로스타미(10)나 영국 켄 로치(스위티 식스틴), 캐나다 데이비드 크로넨버그(거미) 등 쟁쟁한 거장들과 어깨를 겨루어 당당히 입상했다는 점에 무게를 두는 분위기다.

영화 평론가 정성일씨는 "임권택 감독의 영상언어가 이제 서방세계에서도 통할 수 있는 보편성이 있다는 것을 입증했다"고 말했다.

부산국제영화제 전양준 프로그래머는 "그간 유럽 영화에 주눅들어 했던 한국 영화가 자신감을 갖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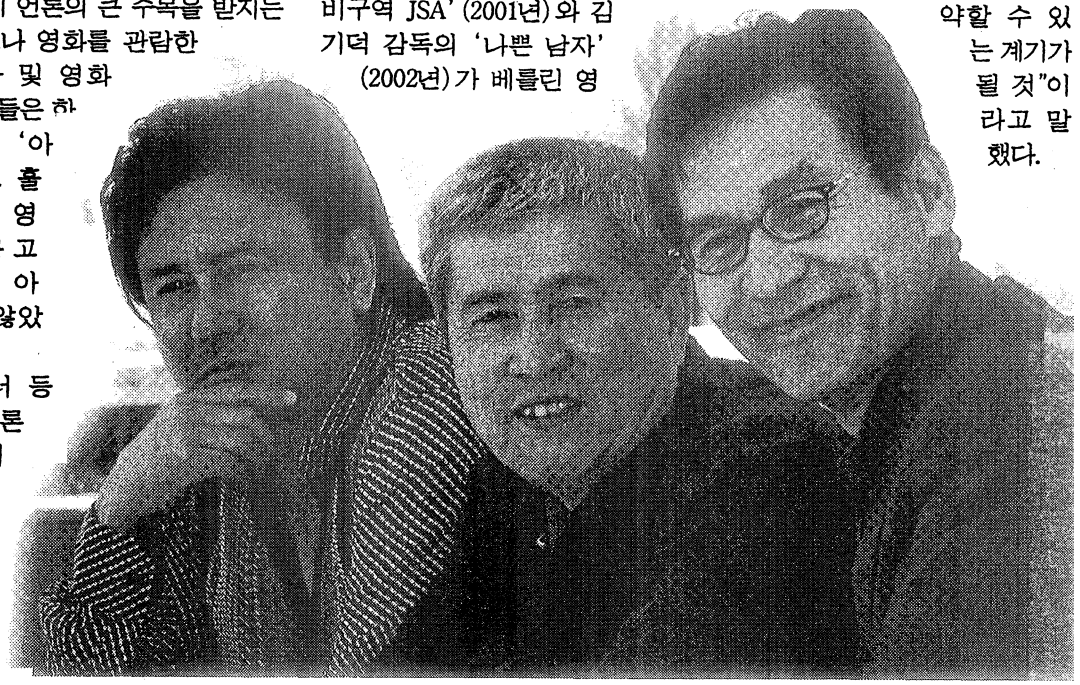
'취화선'이 칸영화제에 초청됐을 때부터 임감독의 수상은 어느 정도 예견돼왔다.

'취화선'의 공식 상영회가 폐막 하루 전인 25일 열려 영화제 기간에 현지 언론의 큰 주목을 받지는 못했으나 영화를 관람한 평론가 및 영화 관계자들은 하결같이 '아름답고 훌륭한 영화'라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던 것.

로이터 등 해외 언론과 인터뷰를 가진 최민식씨는 '이번 작품을 바라보는 서양인의 시각이 단순히 신비한 오리엔탈리즘에 빠져 있는 것 같지는 않다. 한국화가 지닌 시각적 아름다움 외에 철학적 의미에 깊이 매료된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고 전했다.

특히 장선우 감독의 '거짓말'(99년)과 김기덕 감독의 '섬'(2000년) '수취인불명'(2001년) 잇따라 베니스 영화제 경쟁부문에 진출했는가 하면 박찬욱 감독의 '공동경비구역 JSA'(2001년)와 김기덕 감독의 '나쁜 남자'(2002년)가 베를린 영화제 경쟁부문에 초청되는 등 지난 3년 동안 한국 영화가 세계 3대 영화제에서 두각을 나타낸 것도 도움이 됐다.

부산국제영화제 김동호 집행위원장은 "올해 칸영화제 마켓에서 한국 영화가 판매 활황을 이룬데다 국내 시장의 유례없는 흥행과 맞물려 이번 수상이 시너지 효과를 발휘, 향후 한국 영화가 국내외적으로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칸 영화제 감독상의 주역인 임권택 감독(가운데)이 '취화선' 주연배우인 최민식(왼쪽), 안성기 씨.

223-406T